

대낮 만취 무면허 운전자 때문에... 산산조각난 한 가족의 행복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간판 기술자인 윤모(3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지난 11일 새벽의 간판 가게(광주시 북구 유동)로 출근했다. 연말이라 주문이 밀려 일손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2~3일 전부터 일을 도왔다.

추운 날씨가지만 제작 일정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길이 17m, 폭 1.5m의 간판을 도로변에 고정할 채 작업에 열중했다. 날씨는 추웠지만, 네 살 된 아들과 아내 뱃속에 든, 두 달 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행복했다.

오후 3시10분께, 03나61××호 소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윤씨를 덮쳤다. 윤씨는 곧바로 응급차에 실려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손을 써보기도 전에 숨졌다.

운전자 이씨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어젯밤 소주를 두 병 정도 마시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술이 겹 겹 알았다"며 황실 수선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73%의 만취 상태. 지난해 3월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고가다 면허가 취소돼 운전 면허증도 없었다.

경찰은 12일 운전자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단란했던 한 가족의 행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원치않는 아이 출산 의사 책임”

법원, “병원측 70% 손해책임” 첫 판결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2일 A씨 부부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고 유전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하게 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담당자들은 A씨 부부의 자녀 5명 가운데 중증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진행성 근위축증(SMA·척수 세포가 퇴화하면서 점차 근육이 위축되는 병) 환자였기 때문에 태아가 같은 병을 앓을 확률이 높았음에도 정확도 97.5%의 검사를 신뢰하고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교통 원활하게” - 동구청 “사업성 떨어져” 용산지구 ‘차고지 설치’ 갈등

시내버스 5개 노선 72대 입고할 곳 없어

광주시 동구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을 놓고 광주시와 동구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이곳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야 주변 교통 여건이 원활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구청은 주민 반대 및 사업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동구청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 지역에 시내버스 배차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면〉
광주시는 최근 동구청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4천㎡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영차고지에 입고할 예정인 시내버스는 27·37·55·75·76번 등 5개 노선 72대다. 광주시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부지 매입비(1㎡당 60여만원)와 건설 비용은 시가 부담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이들 버스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남구 봉선동 간선로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시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동구청은 또 개발사업지구 내에 입주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산동 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만큼 공영차고지 건설이 꼭 필요하다”면서 “동구청이 끝내 거부할 경우 이 지역에 시내버스 배차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용산동에 인접한 용산초등학교 부근에도 공간이 많이 있다”면서 “개발사업지구를 고집하는 시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오는 2008년까지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산동 일대 19만2천㎡를 개발하는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 끝나면 2천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환경미화원이 되고 말거야” 12일 광주시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시험 중 한 응시자가 큰 힘을 다해 뒤통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는 교원·토목기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학 축구부 감독 학생 장학금 유용”

학부모 진정·경찰 수사

강진 경찰은 12일 “공기업과 지자체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일부를 모 중학교 축구 감독 K씨가 선수들 등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과 2005년 한국마사회의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과 강진군의 ‘인재육성 장학금’ 등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3천여만원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측은 그러나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통장 관리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

경찰 방범활동 비웃듯 편의점 강도 곳곳 활개

경찰의 연발 방범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편의점 강도가 광주·전남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올 4월, 주 1회꼴로 발생했던 편의점 강도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강도가 잇따라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 3시5분께 광주시 서구

시 하당동 H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금품을 털렸다.

경찰은 광주 쌍촌동 M편의점 강도사건 용의자가 이전 사건의 용의자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또 ▲형사별 담당 구역 지정 ▲편의점 비상신고벨 설치 ▲주변 순찰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껏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7000)



평등선도지의 중점특권을 누리려는 3.636 최대단기!
 (월매출 100만원) 판매 10만여 개!
 수원선도시 파오래
 111번길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독자불만처리위원회 규합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독자위원회

보도방 도우미 모델서 알몸 투신 중상
 ○...지루증(사정 부전증)을 앓는 은행 직원이 성관계에 불만을 품고 보도방 도우미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가 감금처상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
 ○...1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모 은행 직원 K(23)씨는 지난 5월 31일 밤 11시께 순천시 조례동 S유류주점에서 보도방 도우미 박모(여·23)씨를 불러 인근 모텔에서 현금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40여 분 간 붙잡고 폭행했다는 것.
 ○...도우미 박씨는 시달리다 못해 모텔 5층에서 알몸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K씨는 “이날 관계가 잘 되지 않자 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은 효율과 저렴한 가격을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공급대상: 구입 심야 전기보일러 한대 이상

- ▶ 고효율 심야 전기 보일러를 특별공급
- ▶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
- ▶ 무료 설치 및 상담 서비스
- ▶ 무료 시공 후 30일 무료 방문 상담 서비스

하수도 비싼 비용으로 난방을 하십시오?
 ▶ 심야전기보일러
 ▶ 심야전기보일러

경동보일러
 광주 6621673-4983
 전남 010-9469-9373

ANTIQUE FURNITURE GAUJEDING

맞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 ▶ 3인용 소파: 1,200,000원
- ▶ 2인용 소파: 800,000원
- ▶ 1인용 소파: 500,000원
- ▶ 4인용 소파: 1,500,000원
- ▶ 2인용 소파: 700,000원
- ▶ 1인용 소파: 400,000원

18 엔틱가구전문점 (061) 955-8820